

법정 다큐 <계단 The Staircase> 특별 상영
<The Staircase> Special Screening

- 일시 : 2013. 10. 19 (토) 14:00 ~ 22:00
- 장소 : 고려대학교 시네마 트랩
(고려대학교 미디어관 4층)
- 공동 기획 : EIDF, 주한 프랑스 문화원

“<계단: 나는 아내를 죽이지 않았다>는 명작이다”
- 뉴욕 타임스

한국 최초로 상영되는 전설의 법정 다큐멘터리!
EIDF 2013 특별 초청작!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봐야 하는 최고의 교과서

아카데미상 수상 경력의
장 자비에 드 레스트라드의 역작

6시간의 다큐멘터리
과연 정의는 실현될 것인가

[행사 개요]



2001년 12월 9일 새벽 2시 41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더럼 시(Durham, North Carolina) 경찰서에 급박한 전화벨이 울린다. 아내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죽어가고 있다고 한 남자는 전화에 대고 울먹인다. 응급 구조대가 현장에 급파되지만 끝내 캐틀린 피터슨은 과다출혈로 사망한다.

이후 18개월 동안, 그 도시의 저명한 사회지도자이자 작가인 마이클 피터슨은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되고 재판을 받게 된다. 이 다큐멘터리는 18개월 동안 650시간의 기나 긴 재판 기록을 카메라에 담은 프랑스 출신의 다큐멘터리 감독 장자비에 드 레스트라드의 전설적인 법정 다큐 <계단 The Staircase> (2004)이다. 물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6시간의 편집본이다.

몇 가지 이유에서 우리는 실제 법정의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는 거의 접할 수 없었다. 오히려 법정이라는 공간은 픽션이나 드라마적 요소로 차용되고 우리는 새로운 증거와 증언을 통한 극적인 반전에 익숙해져 있다. 하지만 이 다큐멘터리 <계단>에 나오는 모든 장면은 실제 상황들이다. 감독은 어떠한 코멘트나 보이스 오버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감 없이 보여줌으로써 판단의 결정권을 관객들에게 양보한다. 도대체 그 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살인일까 아니면 사고였을까.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루어진다. 계단에서의 추락 과정을 시뮬레이션해보고 검사 측으로부터의 질문에 대비하는 대규모 변호인단, 그리고 무덤까지 파헤치면서 마이클

피터슨의 유죄를 밝히겠다는 검사들. 전혀 예상치 않았던 증거들이 하나씩 들썩 드러나고 마이클 피터슨의 무죄를 믿었던 관객들도 그의 미스터리한 사생활과 성격 때문에 그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한 여성을 살해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15세 소년을 주인공으로 한 다큐 <Murder on a Sunday Morning>로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감독의 저력만큼 6시간은 숨 막히는 반전과 반전으로 점철되어 있다.

영화의 마지막, 배심원들은 최종 평결을 내린다. 마이클 피터슨은 종신형이었을까 아니면 자유의 몸이 되었을까. 하지만 평결 이전에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히 법정물의 서스펜스만을 위해 기획된 작품이 아니라, 과연 ‘객관성’이 무엇인지, ‘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 보이는 이로 하여금 자성케 하는 수작이다.

이런 의미에서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법을 집행하는 관계자라면 이번 국내 최초로 상영되는 이 작품을 한 번 짚은 몰입해서 보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Dir. 장 자비에 드 레스트라드 Jean-Xavier de Lestrade 다큐멘터리 | France | 2004 | 360분

작품소개

영화는 아내가 죽은 직후부터 전개가 시작되며 미국 법조계의 구조와 함께 치밀한 공방을 그대로 담아내었다. 끊임없이 나타나는 새로운 국면과 등장하는 인물들의 감정 흐름을 잡아낸 화면은 흡사 서스펜스 영화를 방불케 한다. 영화는 여섯 시간동안 긴 재판 속 사건의 진실을 놓고 벌이는 이야기들을 배열한다. 동시에 개인들이 지닌 감정선의 변화를 잡아내어 다큐멘터리의 일관된 흐름을 만들어낸다.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의 수많은 증거와 조작 여부, 그리고 증거가 되는 것들과 그렇지 못한 것들의 구분 및 개인의 사생활을 꺼내게 만드는 다양한 기제들은 이 다큐멘터리가 흔한 법정 다큐멘터리가 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이다. 단순히 법원 내 재판의 과정을 담아놓은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기에 영화는 더욱 그 의미가 있다.

줄거리

어느 날 갑자기 작가 마이클 피터슨의 아내가 자택 계단 밑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 아내의 마지막 모습을 본 사람은 마이클 피터슨이었으며 그는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법정에 선다. 이후 마이클 피터슨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긴 사투를 벌이기 시작한다. 수사 과정에서는 미국 사법 절차의 각종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과정에서 그가 숨겼던 비밀과 사생활까지 모두 폭로된다. 동시에 그가 독일에서 살았던 시절 그의 친구도 계단에서 추락사하였다는 사실은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가는데..... 여섯 시간의 긴 러닝타임이 무색할 만큼 영화는 그 긴장감을 놓지 않으며 끊임없이 다양한 국면을 맞이한다.

과연 그녀는 사고로 죽은 것일까, 아니면 정말 살해당한 것일까?

감독 소개



장 자비에 드 레스트라드는 프랑스 파리에서 법학과 저널리즘을 공부한 뒤 1987년 자신의 TV 뉴스 에이전시를 만들었다. 이후 5년 뒤 유럽 TV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만들었다. 레스트라드는 1992년부터 프리랜서 감독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고 사회 구조, 터부, 법조 체계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는 성범죄는 물론 유아 문제, 죽음, 제노사이드에 관한 문제들까지 다루었다. 1995년부터는 프랑스 필름 회사들과 만나 일을 하였고, “일요일 아침의 살인”이라는 자신의 아홉 번째 작품으로 2001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다큐멘터리 상을 수상하였다. 이후 “계단: 나는 아내를 죽이지 않았다 The Staircase (2004)” 를 통해 사회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범죄, 사건에 관한 다큐멘터리에 주력하였다. 2012년 “계단2: 최후의 변론” 을 다시 발표하였으며, 내년에 발표할 새 다큐멘터리를 준비 중이다.